

행정학에서 복지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1978년~2012년) 논문을 중심으로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the Welfar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류상일*, 현택수**
세한대학교*, 고려대학교**

Sang-Il Ryu(0174111012@daum.net)*, Taik-Soo Hyun(loveme@korea.ac.kr)**

요약

본 연구는 행정학에서 복지 분야의 최근까지의 연구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행정학에서 복지 분야 연구 경향은 2000년 이후 들어 복지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론을 적용하는 연구가 많았다. 또한, 2000년대 후반 들어 실증(통계)분석을 사용하고 있는 복지 관련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연구가 많았다. 한편,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사용한 연구키워드의 중심성 분석 결과, 『복지』라는 연구키워드를 큰 중심축으로 하고, 『정책』, 『결정요인』, 『이데올로기』를 작은 중심축으로 하여 『OECD』, 『노인』, 『지방정부』, 『서비스』, 『국가』, 『지역』, 『행정』, 『만족도』, 『여성』, 『시장』, 『예산』 등의 연구키워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중심어 : | 현대의 복지 | 복지행정 | 연구경향분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cent trends in the welfar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trends in the welfar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show that welfare-related research has rapidly and quantitatively expanded since 2000 and there were many studies using theories. In addition, it has been discovered that there have been many welfare-related and government centered studies that used empirical (statistical) analysis. On the other hand, the centrality of research keywords was analyzed by using language network methodology. 『welfare』 was set as the central axis and 『Policy』, 『deciding factor』, 『ideology』 were set as a small central axis. The research keywords, such as 『OECD』, 『elderly』, 『local government』, 『service』, 『nation』, 『regions』, 『administration』, 『satisfaction』, 『women』, 『market』, 『budget』 were influencing.

■ keyword : | Modern Welfare | Welfare Administration Studies | Research Trend Analysis |

* 이 논문은 2012년도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특성화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I. 들어가면서

행정학은 국가의 살림살이를 연구하는 학문분야로써 실천적이고 복합적인 융합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학의 학문적 발전은 국가발전과 더불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행정학은 그간 행정이론, 정책이론, 조직이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지방행정, 관료제, 발전행정, 비교행정, 행정통제, 행정윤리, 행정철학, 행정사, 행정통계, 행정정보체계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 운영과 관련된 세부 학문분과를 발전시켜왔고, 아울러 국가 분야별 전문영역인 복지행정, 환경행정, 도시행정, 교통행정, 경찰행정, 소방행정, 과학기술정책, 정보통신정책, 재난관리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세부 분야별 학문분과로 진화해왔다[1]. 이렇듯 최근 들어 행정학의 연구경향도 다변화하는 추세이다.

한편,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역사적 근원은 구빈제도로서 창제(創制)가 실시된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근대적 의미에서 복지정책을 국민들의 생활상의 위험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회적 급부를 제공하는 국민국가의 공공정책으로 정의 내린다면,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역사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1948년¹⁾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2].

이와 같이 행정학에서 바라보는 복지 즉, 복지행정 내지 복지정책은 행정학의 세부 분과로써 대한민국정부 수립이후로 보고 있고, 최초의 복지 관련 논문은 1978년 신상준의 『복지행정의 연구대상: 복지행정의 정립을 위한 시론』 연구논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복지행정은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복지학 내지 사회사업학의 영향을 받아 국가정책의 일환으로써 비교적 뒤늦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3].

따라서 복지학 내지 사회사업학에서 바라보는 복지행정과 행정학에서 바라보는 복지행정은 시각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각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에 의문을 품고 행정학에서의 복지 분야의 학문적 영역은 무엇이며,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²⁾를 중심으로 복지 분야의 최근까지의 학문적 연구경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행정학에서 복지행정연구 경향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연구결과물을 분석하는 것이 복지행정 학문의 성격과 경향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행정학보(1978년~2012년)와 한국정책학회보(1992년~2012)를 대상으로 하여 이론적·개념적 수준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자료에 대한 조작화·계량화에 의한 실증분석을 통한 통계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하며, 아울러, 복지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언어네트워크 방법론을 이용하여, 핵심키워드의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II. 행정학에서 복지 분야의 학문적 영역

1. 행정학에서의 복지

한국행정학보에서 복지와 관련된 최초의 연구는 신상준(1978)의 『복지행정의 연구대상: 복지행정의 정립을 위한 시론』 연구논문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보면, 행정학이 세부 분과로 구분되는 가운데 교통행정, 경찰행정, 외무행정, 국방행정 등과 같이 분류되면서,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대학에서 복지행정학과가 창설되면서 복지행정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영미계를 보면 개인주의철학으로 인하여 국가의 복지활동이 극히 최근해야 나타나게 되어 복지행정학이 발달될 사회적 기반이 일찍이 성숙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영미의 경우에는 사회사업학계에서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1) 1948년 정부수립과 더불어 신설된 사회부(보건국, 후생국, 노동국, 주택국, 부녀국)가 근대적 의미의 복지정책을 펼친 시초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부(1948년-55년)와 보건부(1949년-55년)는 보건사회부(1955년-94년)로 통합되었고, 이후 보건복지부(1994년-2008년)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다시 보건복지가족부(2008년-2010년)로의 변화를 거쳐 현재 보건복지부(2010년-현재)로 기구 변경 되었다.

2) 한국행정학회는 1956년 국립공무원교육원에서 창립된 '한국행정연구회'를 시작으로 보고 있고, 1961년 '한국행정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1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행정학 학문분과에서의 대표적인 학회로써 1961년 '행정월보' 제1호 발간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1], 한국정책학회는 1992년 창립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5].

도 마찬가지로 공행정에 관한 행정학과 사경영에 대한 경영학이 양립되는 것과 같이, 사회사업과 복지행정이 양립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복지행정도 마찬가지로 비교적 역사가 오래된 복지학 내지 사회사업학의 영향을 받아 첫째, 접근방법을 기준으로 공적부조, 사회보험, 공공서비스로 구분되고, 둘째, 대상을 기준으로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심신장애자 복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셋째, 내용을 기준으로 복지행정기획, 복지행정조직, 복지인사행정, 복지재무행정, 복지행정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3]. 즉, 행정학에서의 복지 분야는 국가의 복지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행정학에서 복지 분야의 학문적 입지

현재 행정학에서 복지 분야는 행정학과에서 『복지행정론』이란 세부 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행정론의 일반적인 구성은 복지행정의 이론적 기초, 복지행정론 체계(복지행정의 조직적 차원, 복지행정의 인사적 차원, 복지행정의 재정적 차원, 복지행정의 법적 차원), 복지행정론 구성(공적부조, 사회보험,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지역복지)으로 구성되고 있다[4]. 이처럼, 최근 복지행정에 대한 세부 구성 역시 신상준(1978)의 기준을 대체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학에서 복지 분야의 학문적 입지는 국가 분야별 전문영역의 일부로써 행정학의 세부 학문분과로 이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1978년 신상준의 연구 이후 행정학에서 복지에 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다음에서는 최근까지 행정학에서 복지 분야의 연구경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I. 행정학에서 복지 분야의 연구 경향 분석

1.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과 조사기준

행정학에서 복지 분야 연구 경향 분석을 위한 분석 대상 논문은 다음과 같이 197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책학회에 게재된 82편의 논문들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표 1. 분석 대상 논문

시기	대상 논문
70년대	2편
80년대	3편
90-94년	8편
95-99년	14편
2000-2004년	29편
2005-2012년	26편
합계	82편

분석 기준은 기존 행정학 분야의 연구경향분석 선행 연구들과의 비교가능성, 분석의 적실성, 분석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즉, 분석을 위한 분류기준의 설정을 위해 기존의 연구경향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들 가운데 실증적 방법을 활용한 논문을 위주로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행정학에서 복지 관련 연구 경향 분석을 위한 주요 분류기준을 ① 게재 시기, ② 연구 목적, ③ 연구 방법, ④ 연구 분야, ⑤ 연구 정책 대상으로 설정 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15.0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분석 조사기준

분류 기준	분류 내용	
게재 시기	① 70년대 ② 80년대 ③ 90-94년	④ 95-99년 ⑤ 2000-2004년 ⑥ 2005-2012년
연구 목적	① 이론(개념) 소개 ② 이론 검증 ③ 이론의 적용	④ 정책대안의 제시 ⑤ 기타
연구 방법	① 문헌분석 ② 사례분석	③ 실증(통계)분석 ④ 기타
연구 분야	① 복지정책(행정) ② 복지조직(시설) ③ 사회보험 ④ 아동복지 ⑤ 여성복지	⑥ 노인복지 ⑦ 장애인복지 ⑧ 외국의 복지 ⑨ 기타
연구 정책 대상	① 중앙정부 ② 지방정부	③ 민간 및 NGO ④ 기타

2. 행정학의 복지 분야 연구 경향

(1978년~2012년)

행정학에서 복지 분야의 연구 경향을 분석함에 있어 첫째,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책학회에 게재된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70년대 2편, 80년대 3편,

90-94년 8편, 95-99년 14편, 2000-2004년 29편, 2005-2012년 26편으로 복지 분야 연구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게재 시기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70년대	2	2.4
	80년대	3	3.7
	90-94년	8	9.8
	95-99년	14	17.1
	2000-2004년	29	35.4
	2005-2012년	26	31.7
	합계	82	100.0

이와 같은 연구의 양적 팽창은 한편으로는 국가 복지 정책의 확대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 분야가 행정학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를 기점으로 2000년대 들어 복지 관련 논문이 양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발달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³⁾. 즉, 2000-2004년의 5년 동안의 연구가 가장 활발

3)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별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이승만정부(1948-1960) 당시에는 세계 최빈국으로 복지수요는 폭증하였으나 당시 산업화 수준, 계급구조, 민주화정도, 국가능력 등 모든 면에서 볼 때, 체계적인 사회보장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 조건들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 복지정책은 일제가 1944년에 발표한 조선구호령과 미군정정이 실시했던 사회구호사업의 연장선에 머물러 있었다. ② 장면정부(1960-1961) 시기에도 또한 사회보장제도 형성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③ 박정희정부(1961-1979) 시기에는 '반공을 국시로 함'과 동시에 '시급한 민생고의 해결'을 내걸고, 지난 정부들이 소홀히 해왔던 기초적인 사회복지법들을 제정비하고 현대 사회복지제도의 핵심인 사회보험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그러나 사회보장에 있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친화적으로 설계하는 원칙을 공적부조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④ 전두환정부(1980-1987) 시기에는 4대 국정지표로 복지사회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하였으나, 복지정책상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고 박정희정부가 마련한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기본틀 안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특수복지수요를 충족시키는 조치를 취해왔다. ⑤ 노태우정부(1988-1992) 시기에는 정치적 지지기반은 과거 발전국가와 동일하였기에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정권이었으나,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기가 드높았기에 노태우정부는 전두환정부 말기에 시작된 복지정책기조의 변화를 수용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함양하는데 주력하였다. ⑥ 김영삼정부(1993-1997) 시기에는 노태우정부의 복지정책기조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⑦ 김대중정부(1998-2002)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으로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

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와 노무현 정부 시기의 복지 정책의 증대에 영향을 받아 복지 관련 연구가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행정학에서 복지 분야 연구는 아래와 같이, 이론의 적용(39.0%)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연구 목적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이론(개념) 소개	16	19.5
	이론 검증	19	23.2
	이론의 적용	32	39.0
	정책대안 제시	15	18.3
	합계	82	100.0

게재 시기에 따른 연구 목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별로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hi^2 : 42.338 / df:15 / p: 0.000$). 즉, 70-80년대의 행정학에 나타난 복지 연구들은 주로 이론(개념)을 소개하는 연구였으나, 90년대 들어 이론의 적용과 정책대안 제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에는 이론의 적용과 이론의 검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가 이렇게 도출된 것은 70-80년에는 행정학에서 복지행정이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로 복지 관련 이론을 소개하는 연구에 의미를 두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복지 분야가 행정학에서 확고히 자리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론 검증 및 이론 적용을 시도하는 연구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이란 국정지표에 '생산적 복지'를 추가함으로써 복지문제의 전향적인 정부를 등장시켰다. 즉, '생산적 복지'의 이념하에 국민의 사회권을 보장하고 국민연대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⑧ 노무현정부(2003-2007)는 김대중정부에서 추진한 복지정책의 기조를 계승하였다. 그러나 집권 중후반기에는 지식경제화와 저출산·고령화가 야기하는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동반성장'의 이념하에 사회투자관점에서 사회비전2030을 제시하는 등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도 적극 나섰다(양제진, 2008: 327-349). 한편, 이명박정부의 경우 기초생활 비수급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적 생계지원과 공공일자리를 중심으로 경제위기 이후 불거진 사회문제에 대응해 오고 있다. 즉, 사후적 성격의 빈곤대책을 시행에 그치고 있다[6].

표 5. 게재 시기에 따른 연구 목적

구분	연구 목적					전체	
	이론 (개념) 소개	이론 검증	이론 적용	정책 대안 제시			
게재 시기	70년대	빈도	2	0	0	0	2
		%	100.0%	.0%	.0%	.0%	100.0%
	80년대	빈도	3	0	0	0	3
		%	100.0%	.0%	.0%	.0%	100.0%
	90-94년	빈도	1	0	4	3	8
		%	12.5%	.0%	50.0%	37.5%	100.0%
	95-99년	빈도	3	0	6	5	14
		%	21.4%	.0%	42.9%	35.7%	100.0%
	2000-2004년	빈도	5	6	14	4	29
		%	17.2%	20.7%	48.3%	13.8%	100.0%
	2005-2012년	빈도	2	13	8	3	26
		%	7.7%	50.0%	30.8%	11.5%	100.0%
	전체	빈도	16	19	32	15	82
		%	19.5%	23.2%	39.0%	18.3%	100.0%

*x2 : 42.338 / df:15 / p: 0.000

셋째, 행정학에서 복지 관련 연구들의 연구 방법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사례분석(4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헌분석(29.5%)방법과 실증분석(27.9%)방법 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연구 방법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문헌분석	24 29.3
	사례분석	29 35.4
	실증(통계)분석	28 34.1
	기타	1 1.2
	합계	82 100.0

게재 시기에 따른 연구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x2 : 36.940 / df: 15 / p: 0.001). 즉, 70-80년대 및 9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문헌분석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는 사례분석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후반에는 실증(통계)분석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SPSS 통계 패키지를 활용한 연구가 행정학 전반

에서 증대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표 7. 게재 시기에 따른 연구 방법

구분	연구 방법				전체		
	문헌 분석	사례 분석	실증 (통계) 분석	기타			
게재 시기	70년대	빈도	2	0	0	2	
		%	100.0%	.0%	.0%	.0%	100.0%
	80년대	빈도	3	0	0	0	3
		%	100.0%	.0%	.0%	.0%	100.0%
	90-94년	빈도	6	1	1	0	8
		%	75.0%	12.5%	12.5%	.0%	100.0%
	95-99년	빈도	2	10	2	0	14
		%	14.3%	71.4%	14.3%	.0%	100.0%
	2000-2004년	빈도	6	12	10	1	29
		%	20.7%	41.4%	34.5%	3.4%	100.0%
	2005-2012년	빈도	5	6	15	0	26
		%	19.2%	23.1%	57.7%	.0%	100.0%
	전체	빈도	24	29	28	1	82
		%	29.3%	35.4%	34.1%	1.2%	100.0%

*x2 : 36.940 / df: 15 / p: 0.001

넷째,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복지 관련 82편의 연구논문의 연구 분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복지정책(56.1%)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복지조직(13.4%)에 대한 연구와 외국의 복지(13.4%)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사회보험, 아동복지, 여성복지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게재 시기에 따른 연구 분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x2 : 25.339 / df: 35 / p: 0.885).

표 8. 연구 분야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복지정책(행정)	46 56.1
	복지조직(시설)	11 13.4
	사회보험	2 2.4
	아동복지	2 2.4
	여성복지	3 3.7
	노인복지	4 4.9
	외국의 복지	11 13.4
	기타	3 3.7
	합계	82 100.0

다섯째, 행정학에서 복지관련 연구 경향의 연구 정책 대상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중앙정부(62.2%)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다음으로 지방정부(23.2%)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한편, 게재 시기에 따른 연구 정책 대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hi^2 : 16.373 / df: 15 / p: 0.358$).

표 9. 연구 정책 대상

구분		빈도	퍼센트
유형	중앙정부	51	62.2
	지방정부	19	23.2
	민간 및 NGO	10	12.2
	기타	2	2.4
	합계	82	100.0

3.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통한 복지 분야 연구 경향의 패턴(1978~2012년)

행정학에서 복지 분야의 최근 연구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1978년에서 2012년까지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복지 관련 논문 82편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키워드의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내용 분석의 일종인 언어네트워크방법론⁴⁾을 활용한 것으로써, 한국어 텍스트

4) 언어는 마음의 창으로 불린다. 인간의 인식은 언어를 매개로 표현되며, 따라서 언어를 통해 인식을 읽을 수 있다[7]. Jonassen et al.(1993)은 인식의 스키마는 일련의 개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라고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언어네트워크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최근 국내 언론매체 연구를 중심으로 소수 연구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연구방법론이다[8]. 언어네트워크분석은 텍스트 내의 단어들 간의 관계를 부호화하고(encoding) 연계된 단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법이다[9]. 한편, 네트워크분석적 시각에서 텍스트를 내용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핵심 단어간 의미론적 연관이다[8][9]. 핵심 단어들이 특정한 형태로 결합될 때 특정한 의미를 발생하며, 따라서 핵심 단어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빈도는 사회네트워크 분석에서의 ‘관계’가 된다[10]. 보다 구체적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사회네트워크분석의 이론과 방법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언어네트워크분석에서의 개념(concept)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련된 단어(words)들의 합성체로서(예컨대, 정부, 반정부단체) 사회네트워크분석에서 노드에 해당된다. 두 개념 간의 연계는 서술(statement)이며, 사회네트워크분석의 선(edge) 또는 링크(link)와 같다. 즉, 한 문장 안에서 동시에 둘 이상의 개념이 논의된다는 것은 서로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텍스트 내의 모든 서술들의 결합은 언어지도(semantic map)를 형성하며, 이것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네트워크와 동일하다. 언어네트워크분석에서는 상이한 텍스트

분석⁵⁾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krkwic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고, 사회네트워크 분석⁶⁾ 도구로는 NetMi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복지행정 연구경향 분석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양적수준에서 핵심키워드에 대해 KrKwic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장 출현이 빈번했던 키워드로는 ‘복지정책’이 14회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사회복지(13회)’, ‘복지서비스(7회)’, ‘복지예산(7회)’ ‘복지

트 내의 단어들의 빈도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어휘 행렬(즉, 단어간 공출현 행렬(co-occurrence matrix)이 사회네트워크 분석의 인접행렬(adjacency matrix)처럼 분석된다[11][12].

5) 탐색적 자료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은 연구자가 연구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이 되는 연구를 일일이 탐독하고 분류하는 작업으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된다. 첫째는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를 일일이 탐독하여 1차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둘째는 핵심키워드를 찾는 분석이 시행된다. 셋째는 분석된 핵심키워드를 바탕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KrKwic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KrKwic 프로그램은 초록, 연구주제 등에 대해 연구자가 작성한 텍스트(text) 파일을 바탕으로 1차적 분류를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주제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할 수 있는 행렬매트릭스 방정식(matrix equation)의 작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6) 사회네트워크 분석은 구조적 동위성(structural equivalence), 밀집도(density), 중심도(centrality)와 같은 분석방법을 통해 거래관계, 의사소통관계, 영역침투관계, 도구적 관계, 정서적 관계, 사회적 유대, 연결, 관계, 네트워크 등을 파악한다[13]. 따라서 행정학에서 복지 관련 연구 경향에 있어 네트워크 분석은 따로 떨어진 연계가 아니라 독립된 연계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호작용의 연결망(web of relationships)을 분석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의 차원에서 네트워크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는 구조적 동위성(structural equivalence) 분석이다. 구조적 동위성은 네트워크 내의 행위자들이 어느 유형을 가지면서 상호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둘째는 중심성(centrality) 차원의 접근이다. 중심성은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연구주제)가 중앙에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 개체가 그 주위의 다른 개체들과 직접 연결된 정도가 높을수록 중심성은 높아진다. 따라서 중심성은 그 결정으로 오는 방향의 연결정도를 나타내는 내향중심성(indegree centrality)과 그 점에서 밖으로 나가는 연결정도를 나타내는 외향중심성(outdegree centrality)으로 구분된다. 연구경향분석에 있어 연결중심성은 양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진 연구주제들 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연구주제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는 중앙성 차원의 접근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위세중앙성(prestige centrality) 분석을 시도한다. 연결중앙성이 양적인 측면에서 연결수를 중시하는 중앙성 분석이었다면, 위세중앙성은 연결된 상대방의 상대적 중요성에 가중치를 둔 개념이다. 즉, 자신의 연결 정도와 중앙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영향과 자신과 연결된 타 행위자의 영향력을 합한 상대적 가중치를 모두 포함하는 중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경향분석에 있어 위세중앙성은 연구주제의 총체적 영향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적 구조를 바탕으로 연구주제의 행렬매트릭스를 작성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게 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연결 중심성(centrality) 차원에서의 접근만을 시도하고자 한다.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연결중심성의 외향중심성 차원에서 ‘복지’, ‘정책’, ‘결정요인’, ‘이데올로기’, ‘OECD’, ‘노인’, ‘지방정부’순으로 높은 연결중심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97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복지 관련 82편의 연구논문들은 ‘복지’라는 연구키워드를 큰 중심축으로 하고, ‘정책’, ‘결정요인’, ‘이데올로기’를 작은 중심축으로 하여 ‘OECD’, ‘노인’, ‘지방정부’, ‘서비스’, ‘국가’, ‘지역’, ‘행정’, ‘만족도’, ‘여성’, ‘시장’, ‘예산’ 등의 연구키워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IV. 나가면서

본 연구는 행정학에서 복지 분야의 최근까지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행정학에서 복지 분야의 연구경향이 어떻게 변화하여왔는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행정학에서 복지 분야의 학문적 영역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1978년부터 2012년까지의 복지 관련 82편의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이론적·개념적 수준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자료에 대한 조작화·계량화에 의한 실증분석을 통해 통계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또한,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키워드의 연결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행정학에서 복지 분야 연구 경향 분석결과를 요약해보면, 첫째, 70-80년대에 비해 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복지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둘째, 행정학에서 복지 관련 연구들은 주로 이론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70-80년대에는 이론의 소개가 주였으나, 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는 이론 적용과 이론 검증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방법 차원에서는 70-80년대 및 90년대 초반에는 주로 문헌분석에 의한 방법이 주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사례분석 방법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2000년대 후반 들어 실증(통계)분석을 사용하고 있는 복지 관련 연

구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행정학에서 복지 관련 연구들의 세부 연구 분야는 주로 복지정책과 복지조직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연구 정책 대상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키워드의 중심성을 분석해 본 결과, ‘복지’라는 연구키워드를 큰 중심축으로 하고, ‘정책’, ‘결정요인’, ‘이데올로기’를 작은 중심축으로 하여 ‘OECD’, ‘노인’, ‘지방정부’, ‘서비스’, ‘국가’, ‘지역’, ‘행정’, ‘만족도’, ‘여성’, ‘시장’, ‘예산’ 등의 연구키워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행정학에서 복지 분야의 학문적 영역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에 제시된 연구결과물(논문)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연구경향 분석을 실시하고, 아울러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한 연구키워드의 중심성 분석이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으로 행정학에서 복지 분야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있다는데 이론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행정학보와 한국정책학회보에 게재된 82편을 분석대상으로 하다 보니,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행정학과 관련하여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학회지이기 때문에 행정학에서의 복지 분야의 연구경향 흐름을 파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행정학 관련 다수 학회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면, 더욱 명확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한국행정학회(<http://www.kapa21.or.kr>).
- [2] 양재진, 한국 복지정책 60년: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전환의 필요성,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2호, 2008.
- [3] 신상준, 복지행정학의 연구대상: 복지행정학의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행정학보, 제12권, 1978.
- [4] 김태수, 백종섭, 신희영, 복지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3.
- [5] 한국정책학회(<http://www.kapa.or.kr>).

- [6] 신동면, 경제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대안, *한국정책학회보*, 제18권 제4호, 2009.
- [7] R. L. Pinkley, Dimensions of conflict frame: Disputant interpretations of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75, pp.117-126, 1990.
- [8] 박한우, L. Leydesdorff, 한국어 내용분석을 위한 KrKwic 프로그램의 이해와 적용: Daum.net에서 제공된 지역혁신에 관한 뉴스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Vol.6, No.5, 2004.
- [9] M. L. Doerfel and S. L. Connaughton, Semantic networks and competition: Election year winners and losers in U.S.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1960-2004,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Vol.60, No.1, pp.201-218, 2009.
- [10] R. E. Rice and J. A. Danowski, Is it really just like a fancy answering machine? Comparing comments and semantic networks about voice mail,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Vol.30, pp.369-397, 1993.
- [11] 심준섭, 언어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활용한 갈등 프레임의 분석, *한국행정연구*, 제20권, 제2호, 2011.
- [12] D. H. Jonassen, K. Beissner, and M. Yacci, *Structural Knowledge*. Hillsdale, New Jersey, 1993.
- [13] 김용학, *사회연결망분석*, 박영사, 2001.
- [14] 손동원, *사회네트워크 분석*, 경문사, 2005.
- [15] L. Freeman,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Vol.1, pp.215-239, 1979.

저자 소개

류 상 일(Sang-II Ryu)

정회원



- 2007년 8월 : 충북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8년 6월 ~ 2008년 8월 : 충남발전연구원
- 2008년 9월 ~ 현재 :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소방행정, 재난관리, 네트워크이론, 산업복지

현 택 수(Taik-Soo Hyun)

정회원



- 1993년 9월 : 파리 소르본 대학 사회학 박사
- 1995년 3월 ~ 1997년 2월 : 한국방송개발원(KBI) 선임연구원
- 1997년 3월 ~ 현재 : 고려대 학부 사회학과 교수,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